

“4대 핵심 요구 쟁취, 양재동 가이드라인 박살”

현대모비스 모듈·부품사 13 지회 간부 결의대회 ... “참을 만큼 참았다. 투쟁 조직할 때”

금속노조 현대모비스 모듈·부품사 13개 지회가 장대비를 뚫고 한자리에 모여 “단결의 힘으로 승리의 가을을 쟁취하자”라며 투쟁 의지를 높였다.

금속노조 현대모비스 모듈·부품사 지회들이 8월 23일 충남 아산시 모트라스-유니투스 본사

정문 앞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공동투쟁을 통해 “4대 핵심 요구 쟁취하고, 양재동 가이드라인 박살 내자”라고 외쳤다. 현대모트라스와 현대유니투스는 현대모비스의 모듈·부품 생산 시설 자회사다.

이날 금속노조 현대모비스안양지회, 현대모비스평택지회, 현대모비스하나지회, 현대모비스화성지회, 현대모비스광주지회, 현대모비스김천지회, 김천현대모비스지회, 현대모비스충주지회, 울산현대모비스지회, 현대모비스울산지회, 현대모비스서산지회, 현대모비스아산지회, 현대모비스천안지회 등 13개 지회 400여 명의 확대간부가 집결했다.

대회사에 나선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예상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으로 오리무중에 빠졌다”라며 “다가



오는 9월 5일 국회를 압박하는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 동지들이 함께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현대모비스 모듈·부품사 지회는 현재 신설 법인 모트라스-유니투스와 별이는 교섭에서 단체협약 131개 조항 중 107개에 의견일치 했다. 2024년 공동교섭 확립, 업체 근속 원상회복, 상여금 격차 폐지, 주간 연속2교대 쟁취 등 4대 핵심요구를 포함한 24개 조항은 여전히 쟁점이다.

윤장혁 위원장은 “사측은 그룹사 눈치 보기, 양재동 핑계로 조합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한세훈 금속노조 울산지부 울산현대모비스지회 대의원은 투쟁 발언을 통해 “모트라스는 출범 이후 소동을 강조했지만, 본사 주요 부서 관리자들은 짧은 식견으로 현장 조합원들을 깔보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

다”라며 “관리자들은 정신 차리고 현장 노동자 요구에 귀 기울이라”라고 비판했다.

전주탁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현대모비스충주지회 교육선전부장은 “2023년 첫 교섭 시작부터 현대자동차 자본은 숨겨온 더러운 속내를 드러냈다”라면서 “우

리는 참을 만큼 참았다. 조합원들에게 사측의 행태를 낱알이 알리고, 투쟁을 조직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현대모비스 모듈·부품사 지회 금속노동자들은 13개 지회장들의 결의사와 결의문 낭독 뒤 ‘양재동 가이드라인’ 이라고 적은 대형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으로 이날 대회를 마무리했다.

현대모트라스와 현대유니투스는 모비스의 모듈·부품 생산 자회사다. 지난 2022년 8월 기존 복수의 생산 전문사들을 통합하면서 출범했다. 모트라스는 모듈 조립을, 유니투스는 제동·조향·에어백 등 부품 생산을 담당한다. 현대자동차 자본은 자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 생산 전문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불법과건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다.

“노동자 산재 공범 취급 윤석열 · 노동부 부순다”

생명안전 후퇴 개악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 중재법 시행 후 2,400명 산재 사망, “정부 뭐하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이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멈추지 않는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자본가 보호를 위한 법 개악 저지 투쟁을 벌인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은 8월 23일 오후 세종시 법원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앞에서 ‘생명안전 후퇴 개악 규탄, 산안법 적용 제외 폐지·전면 적용,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매일 들려오는 현장 노동자의 죽음 소식, 후퇴하는 생명안전의 전선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본부 앞에서 투쟁을 전개한다”라고 이날 대회의 의미를 밝혔다.

이태의 총연맹 부위원장장은 “노동부가 산재를 책임져야 하는 사용자에게 산재 진위를 물어 산재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라며 “자본의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자를 산재 공범으로 몰아붙이는 윤석열과 하수인들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결의했다.

조재승 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비엔지스틸지회 지회장은 현장 투쟁 발언을 통해 “2022년 현대비엔지스틸에서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지만, 사측은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라면서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23년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조재승 지회장은 “사측은 세 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으나 사과는커녕 노후 설비 교체, 인원 충원에 관

해 전혀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다”라며 “산재 책임을 회피하는 재벌들을 처벌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재승 지회장은 “노동조합이 창원노동지청과 부산노동청에 작업중지, 특별관리 감독을 요구했지만, 근로감독관은 ‘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중지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라면서 “노동부는 반드시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호통쳤다.

조재승 지회장은 “노동자들은 바람은 하나다. 일하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맞이하고 싶은 것이 전부다”라며 “부도덕한 정일선 최고경영책임자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노동부의 안일한 행정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정일선은 현대가 재벌 3세대. 2016년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A4용지 140장 분량의 행동수칙을 강요하고, 지키지 못하면 폭행과 폭언, 반성문을 쓰게 했다. 벌금 300만 원



형을 받았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대정부 투쟁사에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6개월이 지나서야 치료와 재활을 승인해준다”라면서 “산재보험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태진 부장은 “정부는 직업병 인정 범위를 늘리고, 노동자가 치료와 재활을 신속히 받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라며 “금속노조가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위해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노동부는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개선 TF를 발족해 ▲ 과징금 도입, 사업주 형사처벌 완화 ▲ 경영책임자 의무 축소 ▲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안을 검토하고 법 개악안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